

최첨단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의 도약 '준비 완료'

1969년 창립된 (주)인팩은 자동차 케이블 전문기업으로, 최근 밸브, 안테나 등으로의 사업 확대와 해외 비즈니스 확장, 주식 시장 상장 등 변화와 성장을 겪고 있다. 급격히 성장하는 비즈니스와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웨어를 재구축한 인팩은 IBM Lotus Notes 기반의 eMATE Groupware를 통해 글로벌 통합과 소통 강화, 업무 효율성 개선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Project Overview

- 도입 배경 | 글로벌한 통합 IT 환경과 소통 강화, 업무 효율성 개선 필요
- 선정 이유 | Lotus Domino 기반의 안정성, 다국어 지원, 유지보수 용이, 기간제 인프라 연동이 용이한 확장성 지원
- 도입 효과 | 글로벌 조직까지 아우르는 소통 채널 체계화, 싱글사인온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개선, 용이한 유지 관리를 통한 개발비용 감소
- 도입 제품 | Lotus Notes/Domino (새롬정보시스템 eMATE Groupware)

1969년 창립된 (주)인팩은 자동차 케이블 전문기업으로, 지난 40여 년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차세대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다. 최근에는 자동차 케이블 외에 자동차용 밸브, 스위치, 서스펜션, 안테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연구소를 통해 차세대 부품 사업의 원천기술 확보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안산과 천안, 인천, 목감, 음성과 해외의 북미, 인도, 중국(북경, 청도), 베트남 등에 생산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올해는 1200억 원의 매출액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팩은 최근 10년 사이에 신규 사업 추진, 해외 비즈니스 확대, 주식 시장 상장 등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을 발판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한 미래형 자동차 부품 개발,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임직원의 복지 향상, 무한 정밀 기술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 등을 실현함으로써 21세기 종합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인팩의 미래 비전이다.

업무 효율성 개선할 글로벌 통합 IT 환경 구현

인팩은 신규 사업 추진, 해외 비즈니스 확대, 주식 시장 상장 등 최근의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겪으면서, IT 인프라 개선을 통한 조직 내 원활한 소통과 업무 효율성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해외 지사나 생산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한 조직과 비즈니스를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통합 IT 환경 구현이 필요해졌다.

이에 인팩은 자사의 주요 IT 인프라들을 '글로벌 통합'이라는 목적 하에 재구축 또는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그 일환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그룹웨어 등의 기반 인프라를 재구축했다. 이 중 그룹웨어의 경우, 400여 임직원들의 소통과 업무 효율성 개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라는 점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구현했다.

인팩은 그룹웨어 솔루션 도입을 위해 안정성, 유지보수의 용이함, 글로벌 표준, 다국어 지원 등을

주요 요건으로 검토했다. 그룹웨어에 기간계 인프라들을 연동하고, 싱글사인온 환경을 갖추으로써 전 임직원들이 그룹웨어를 통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팩이 그린 신규 그룹웨어의 청사진이었기 때문이다.

표준화, 안정성, 유지보수, 확장성 주로 검토

이러한 요건 하에 여러 솔루션을 검토한 결과, 인팩은 새롬정보시스템의 eMATE Groupware 제품을 선택했다. eMATE Groupware는 IBM Lotus Notes 기반으로 안정적이며 글로벌 표준을 모두 준수한다. 특히 템플릿 기반이어서 비즈니스나 업무 변경시에 개발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부에서 직접 변경,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지식관리, 문서관리시스템은 물론 기간계 인프라와도 쉽게 연동할 수 있는 확장성이 지원된다.

인팩 종합기획실의 기형중 이사는 “글로벌 통합을 위해 표준화, 안정성, 유지보수, 확장성 등의 요



건이 필요했는데, Lotus Notes 기반의 eMATE Groupware는 우리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개발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유지와 변경,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인팩과 같은 중견기업의 경우, 내부에 전산팀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솔루션의 경우 전적으로 개발업체에 의존하게 되는데,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성도 낮고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기형중 이사는 “그룹웨어의 경우 사용자들의 요구나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성격의 인프라다. 그동안 개발업체에 의존하느라 사용자 요구에 적절하게 변경,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새로 구현한 그룹웨어는 개발이나 관리가 매우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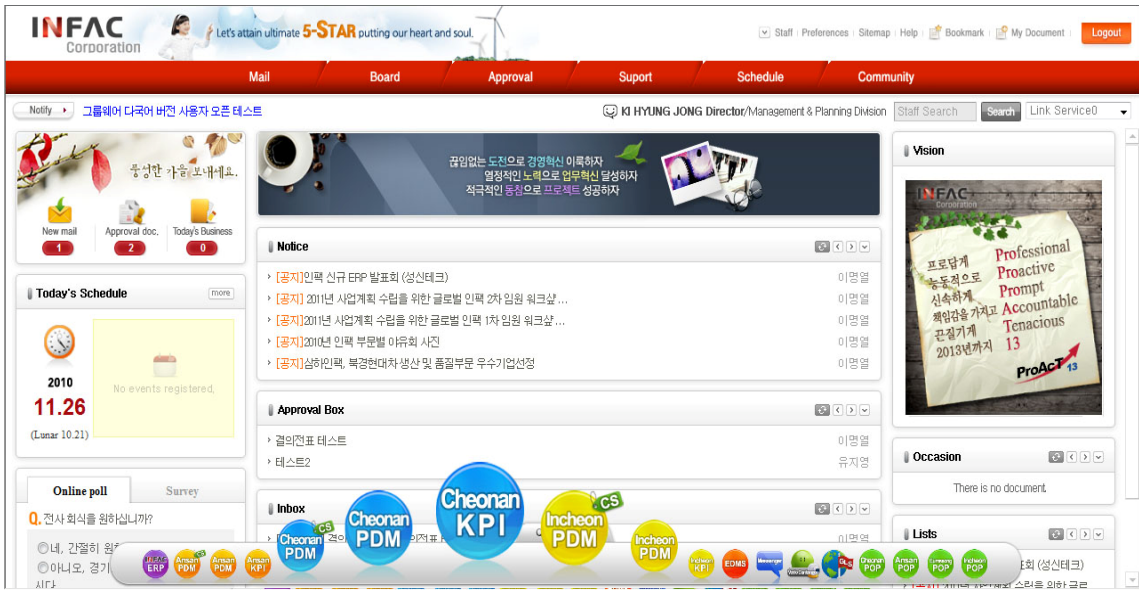
Lotus Notes 기반의 eMATE Groupware가 최적

인팩은 그룹웨어가 주요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는 ‘포털’ 형식의 관문이 되도록 구현했다. 메일, 전자결재, 게시판, 업무 지원, 프로젝트 관리 등의 그룹웨어 기본 기능 외에 최근 재구축한 ERP, MES 등의 기간계 인프라와 직접 연계되도록 했다. 또 문서관리 시스템과 중요지표관리(KPI) 시스템, 제품 개발 관리 시스템(PDM)도 싱글사인온을 통해 그룹웨어에서 접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ERP에서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 이에 대한 전자결재가 그룹웨어를 통해 요청되고, 결재가 승인되면 ERP에 해당 전표가 자동 승인되는 형식의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 구현이 가능해졌다.

기형중 이사는 “인팩은 연구, 설계부터 양산까지 제품 개발, 생산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PDM, ERP, MES로 연결되는 IT 인프라 간의 연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룹웨어가 이런 주요 IT 인프라를 연결하는 일종의 ‘진입로’가 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팩은 사용자들의 사용성을 높이는데도 중점을 뒀다. 다국어 지원, 게시판 기능의 간소화 등이 이러한 요건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문서 서식도 기존에 40여 개에 이르던 것을 10개 내외로 표준화했다.



ERP, MES, PDM 등 기간계 인프라와 연동,

인팩은 이번 그룹웨어 구축을 통해 글로벌 조직까지 아우르는 소통 채널 체계화, 싱글사인온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개선 그리고 용이한 유지 관리를 통한 개발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팩은 그룹웨어를 기반으로 모바일 오피스 환경도 구현할 예정이다. 어떤 단말기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모바일 웹 기반으로 구현해 임직원 간의 소통은 물론 업무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환경을 갖출 계획이다. 또 협력사 관리를 위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SCM)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인팩의 차세대 IT 인프라는 향후 21세기 종합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인팩이 재도약하는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